

주말이슈 | 떳떳하지 못했던 NC의 선수관리

올해만 KBO 상벌위 두번째 회부...NC, 단디 좀 하시오!

2년 전엔 테임즈 음주운전 능력 공개 작년엔 이태양 파문으로 상벌위 회부 올해 6월엔 불법 현금 트레이드 못매 이번엔 강민국 사건으로 상벌위 리콜

선수, 구단의 일탈행위와 규약위반은 야구팬들의 시선을 KBO리그에서 멀어지게 하는 주범이다. 프로야구 선수의 음주운전 소식은 1년에도 몇 건씩 나온다. 이밖에도 선수들이 저지르는 일탈행위는 술하다. 어느 팀도 자유롭지 못하다.

KBO리그의 '아홉 번째 심장'을 자처한 NC 다이노스는 다른 선배 구단들에 비해 머리를 숙이는 일이 유독 더 잦다.

NC는 2014년 1월 9일 창원 시내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된 강민국(현 KT 위즈)을 KBO에 신고하지 않았다. 명백한 규약위반이었지만 '입단 계약 발표 전'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KBO는 강민국의 음주사건을 NC가 은폐했다는 스포츠동아 단독보도(21일자)를 접한 뒤 22일 "NC 시절 음주운전 사실 미신고 후 트레이드된 KT 위즈 강민국 관련 사안에 대해 27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계약서가 KBO에 넘어간 시점인 데다 강민국이 유니폼을 입은 채 훈련 중이었으며, NC가 그를 스프링캠프 명단에 포함시켰던 점 등 모든 정황은 'NC가 강민국을 소속



정의·명예·존중'을 표방하는 NC 다이노스의 또 다른 모토는 '단디하자'다. 제대로 혹은 똑바로 일을 하자는 뜻의 경상도 사투리인데 NC는 정착 자신들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는 모양새다. 마산구장을 배경으로 한 NC의 마스코트 단디. 스포츠동아DB

선수로 인지했다'는 방향을 가리킨다.

NC가 상벌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올해만 두 번째다. 지난 6월 적발된 히어로즈와 불법 현금 트레이드 관련해 NC도 벌금 2000만 원을 냈다. 물론 SK 와이번스를 제외한 모든

구단들이 연계된 게이트였지만 그렇다고 NC가 받아야 할 지탄이 적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난해에도 NC는 상벌위원회에 올랐다. 1월, NC 소속이던 2015년 브로커와 공모해

4차례 승부조작을 저지른 이태양이 영구실격을 당했다. 3월에는 선수단 관리소홀을 이유로 NC에 제재금 5000만원이 부과됐다. KBO가 구단에 내린 제재금 가운데 최고액이었다.

NC는 2016년 9월에도 에릭 테임즈의 음주운전 사실로 시끄러웠다. 당시 테임즈는 9월 24일 밤 경찰에 적발됐다. 이를 뒤인 26일 마산 중부경찰서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았다. NC는 사고 발생 5일 뒤인 29일, 이를 뒤늦게 공개했다. KBO에는 오후 1시께 이를 알렸으나 테임즈는 같은 날 오후 3시 삼성 라이온즈와 더블헤더 1차전에 출장해 3타점 활약을 했다. 2차전에도 선발출장했지만 1회 교체됐다. 김경문 당시 감독이 뒤늦게 이를 접달받았기 때문에 생긴 촌극이었다.

KBO 관계자는 강민국과 관련해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NC가 자체 징계를 내렸다는 점은 KBO 보류선수 등록 전(2014년 1월 31일)에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해도 소속 선수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KT가 음주운전 이력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논의 대상이다"고 말했다.

KBO 규약 152조[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는 리그에 소속된 현역 선수가 가징폭력, 성폭력, 음주운전, 도박 등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해당 구단은 즉시 이를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단이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려 한 경우 1억 원 이상의 제재금, 제명 등의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선수에게는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사장·단장도 열외시키는 KT 실세의 그림자

"강민국 트레이드때도 그 사람이?"
KT 출신 모씨, 개혁의 대상 지적

"또 A입니까?"

KT 위즈 소속으로 뛰다 선수생활을 마무리한 모 선수는 이번 강민국 음주운전 트레이드 사태에 대해 사뭇 다른 의견을 보였다. 선수들의 음주운전도 문제지만 이를 처리하는 구단의 태도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KT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강민국을 NC 다이노스에서 트레이드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선수의 음주운전 이력을 실무자는 통보 받았으나 단장과 사장은 몰랐다"고 밝혔다. 유태열 사장과 이승용 단장 모두 이번 트레이드 사태에서 강민국의 음주운전 이력을 보고 못 받은 것이다. 현 운영팀장 역시 "몰랐다"는 의견을 보였다.

트레이드는 선수의 진로와 구단의 전력을 결정짓는 팀 운영의 중차대한 일이다. 구단의 수뇌부에서 모르는 트레이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현대 야구단 운영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바지 단장·사장'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트레이드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A 관

계자는 이전부터 KT 구단 운영의 실세로 불린 인물이다. 이번 사태에도 중심에 있었다.

모 선수는 "또 A냐? KT는 모든 일이 A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팀이 변화하고 나아가려면 A에 대한 인사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KT는 올 시즌을 9위로 마무리했다. 최하위에서 벗어나는 나름의 성과(?)를 냈으나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많다. 이강철 신임 감독, 코치진 개편, 단장 교체 등 새 출발의 시작을 알렸으나 이번 트레이드 사태로 인해 구단 운영 시스템은 또 빼먹거리고 있음을 드러냈다. 구단에 대한 팬들의 관심과 기대는 현장에 있는 선수들이 아닌 팀 운영의 '그림자'로 몰리고 있다.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NC의 사건 은폐와 강민국 상무행
▶1면에서 이어집니다

이보다 더 큰 '사회적 징계'는 상무 농구단 입단 불발이었다. 당시 군 미필이었던 김지완은 상무에 입대 신청서를 내놓은 상황이었다. 2016~2017 정규시즌과 플레이오프에서 맹활약했던 김지완의 상무 입단은 농구계에서 기정사실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생겼다. KBL의 신청서가 발급될 리 없었다. 김지완은 현역으로 복무 중이다. 정확한 절차 아래 본인의 잘못을 지켰고, 치르고 있다.

●병역혜택, 깨끗한 선수에게 돌아가야
2018년 프로스포츠의 최대 화두는 '병역특

례'였다. 과연 운동선수가 국위선양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거웠다. 여기에 경찰청이 의경 감축 방침을 밝혔고, 경찰 야구단과 축구단은 존재 기로에 놓여있다. 선수들이 병역혜택을 누릴 기원은 이제 상무가 유일하다. 물론 현역병 복무 후에도 제 기량을 유지하는 사례도 있지만 꾸준히 몸을 관리하며 실전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상무는 선수들의 선호도가 높다.

일부 선택받은 운동선수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범죄 이력이 있는 이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특히 그 이력을 선수 또는 구단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NC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 거세지면서 KBO와 국군체육부대의 선수선발제도에 대한 개선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는 이유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한글 인터넷주소 : 동아전람

부산 동아전람 박람회
많은 관람 바랍니다.

전시품목

부산 건축박람회
건축자재 / 인테리어 / 조명 / 조경 / 전원주택 / 건축리노베이션 / 냉·난방기기 및 건축설비 기자재 / 유리·창호재 / 주택·건축정보 / 기타 건축·주택 관련제품

부산 디지털프린팅·사인 엑스포
디지털프린터 / 3D 프린터 / 후가공 및 장비 / 디지털·그래픽이미징 / 사인 제작·자재 / 사인 시스템 / 프린팅 시스템 / 사인·광고 제작

부산 스포츠·레저산업 박람회
헬스·유틸리티스 / 아웃도어 용품 / 등산 및 캠핑 용품 / 레저차량 및 용품 / 자전거 / 구기 스포츠 용품 / 익스트림·레저스포츠 / 기타 스포츠 및 레저 관련 용품

부산 방법·보안 엑스포
영상관리·감시·보안 솔루션 / 출입통제 솔루션 / 보안장비 / IT보안(개인 정보보호 솔루션, 통합 보안 솔루션) / 기타 방법·보안 관련제품

4개 박람회 동시개최 **관람안내**

- 제2회 부산 건축박람회
- 제2회 부산 디지털프린팅·사인 엑스포
- 제2회 부산 스포츠·레저산업 박람회
- 2018 부산 방법·보안 엑스포

건축 / 디지털프린팅·사인 / 스포츠·레저 / 방법·보안

BUSAN DONG-AFAIRS

부산 동아전람 박람회

2018.11.23(금)~25(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관람시간 : 오전10시 - 오후6시 (※ 토·일요일도 동일)

※ 동아전람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하시면 무료관람초청장을 보내드립니다.

주최 | 동아전람

관람문의 | TEL. 02)780-0366

www.dong-afairs.co.kr